
기획논문

개념사와 사학사의 만남

1.

‘역사’라는 용어에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과거에 관한 기록이나 관점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역사’의 내용은 인류의 생활 경험이 누적되어 복잡다단하면서도, 그러한 복잡함은 소통에 적합한 형태로 단순화되기도 한다. 시대구분이나 사론(史論)에 관한 논쟁은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관이 충돌하는 현상이지만,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단순화 기제라는 측면도 가진다.

한국사 연구 분야에서 시대구분 논쟁은 196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활성화되었다. 한국사의 주요 주제에 관한 학술적 논쟁도 부단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이지만, 크게 보면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한국인의 주체적·능동적 활동을 부각시키는 방향, 그리고 한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제반 권리와 재화의 분배에서 소외되어 온 계층을 역사전개의 주역으로 부각시키려는 경향 등으로 수렴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 연구자, 나아가 연구자 일반이 당면한 곤란함은 전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합의하고 공유한, 아니 그렇다고 믿어 온 최소한의 기반마저 동요되는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

이다. ‘근대’라는 개념에 전제되어 있던 ‘자본주의 사회’라는 기준은 근본적인 의심을 받게 되었고, ‘민중’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보는 인식도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들어졌다. 이런 사정은 시대구분의 잣대나 역사학의 주요 개념·이론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기획은 그러한 당혹스런 국면을 건디어 나가려는 작은 시도이다.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에 안주하거나 반대로 복잡함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의미 있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념의 관행적 이해나 사전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문맥에서의 쓰임새로부터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발견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이미 개념사(Conceptual History)나 담론 연구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 기획에서는 이런 접근을 한국 역사학 연구 분야에서 추구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한국의 역사학은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내적 발전을 규명하려는 뚜렷한 문제의식이 주도하는 가운데, 역사 전개에 동인(動因)과 주도 세력 등을 바라보는 데서 상이하고 경쟁적인 입장들을 배태하여 왔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식민사학 대 반(反)식민사학’이라는 구도를 넘어 ‘근대 역사학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민족사학과 식민사학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술한대로 ‘근대’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들은, 특정한 주제나 용어가 한국사의 주요 저작이나 사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용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각 연구별로 관찰 대상과 포괄 시기, 접근 방법 등에 차이가 있지만, 특정 주제나 개념의 의미를 선형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텍스트에서의 용례를 통하여 그 의미를 찾아 나간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텍스트는 당대 역사인식을 집적하고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통사류를 중심으로 하였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역사 교과서나 연대기 자료를 1차 사료로 활용하였다.

2.

우리 기획은 이러한 공통분모를 가지면서도 사안에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질적 분석에 치중한 연구와 양적 분석에 주안점을 둔 연구로 양분된다. ‘근대’ 규정,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전근대 빈곤’을 다룬 연구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교과서의 ‘역사인식’, 교과서의 ‘혁명’, 『승정원일기』의 ‘유신(維新)’을 다룬 연구는 후자에 해당한다.

「해방 이후~1970년대 초반 한국사 개설서의 ‘근대’ 규정 및 시대구분의 변화」에서는 ‘근대’라는 시대 규정이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전제 위에서, 해방 후 한국사 주요 개설서의 근대 인식 변화를 3시기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고찰을 통해 개설서의 연구자들이 ‘근대로의 전환 국면에서 한국인이 수동적 피해자나 관찰자가 아님을 적극 증명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근현대 한국 통사(通史)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변화」에서는 자국사의 통사가 국민의 창출과 동원에 핵심수단이 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전근대 피지배층의 저항에 대한 서술이 시대와 사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소재라는 점에 착목하였다. 이 글은 5단계별 변화를 고찰한 뒤,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민중사』에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은 한국 사학사상 가장 큰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파악하였다.

「근·현대 한국 통사서에서의 ‘빈곤’ 인식 — 전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는 ‘빈곤’을 객관적 실재의 층위가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역사재현의 층위로 바라보면서, ‘빈곤’이 근대 역사학의 발전 주의적 서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백남운·이기백이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기점을 마련하고, 민중사학에서 ‘빈곤’과 ‘발전’ 서사가 밀착되어 ‘빈곤’에 가장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 내

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에서는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내재적 발전론의 존재 양태를 계량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역사인식을 특정 용어들로 지표화하고 그 용어들의 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한 결과, 내재적 발전론에 따른 역사인식이 제3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정착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역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혁명’ 서사의 변화」에서는 앞 논문과 동일한 범위의 교과서를 다루면서도 ‘혁명’이라는 단일 용어의 의미 변화를 ‘정권의 요구’라는 컨텍스트적 맥락과 결부시켜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계량적 검토 위에서 구체적 문맥을 하나하나 파악한 이 글에 따르면 교과서에 서술된 ‘혁명’은, ‘민주혁명 서사에서 군인 혁명 서사의 변화’, ‘혁명 서사의 축소와 과도기’, ‘다양한 혁명의 등장과 혁명 서사의 상실’이라는 계기적 변화를 거쳤다.

「조선 말기 유신 개념의 역사적 이해 —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서는 유교 경서에서 유래하는 고전적인 ‘유신’(維新) 개념 및 조선 왕정의 수행에 따른 관례적인 ‘유신’ 개념으로부터 근대적인 ‘유신’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신’ 개념의 정치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유신’ 복합어의 형태별 유형들을 정밀하게 분석한 이 연구는 ‘문명화로서의 유신’이라는 새 용법의 출현을 ‘유신’ 개념의 근대적 변모로 평가하였다.

허 수